

# 옛책 목록화작업 어디까지 와있나

## 주요 소장처들 대부분이 마무리 단계... 지속적인 보완작업 이뤄져야

수백년의 세월을 지나 전해 내려오는 옛책에는 선대의 숨결이 살아숨쉬다. 한 시대의 정신과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는 소중한 典籍들을 후손들은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당시의 구체적 인식을 위해 어떻게 이 전적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은 또 얼마나 원활한가.

활자의 개발 이래 고려와 조선을 거쳐오며 왕성하게 간행되었던 전적들은 적지않은 수가 잦은 이민족의 침입과 수탈로 없어지거나 유출되어 현재까지 일본이나 미국 대만 중국 소련 등지에 흩어져 있는 등 우리의 지난한 역사와 운명을 함께 해왔다.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古書들은 대다수가 국가연구기관이나 대학도서관, 문중이나 애장가들의 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좀 오래된 통계이고, 도서관에 국한돼 있지만 古書라는 게 갑자기 불어나는 종류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81년 발표된 '한국 도서관통계'를 보면 우리의 도서관에서 고서가 어떻게 소장되고 있는지 아쉬운 대로 살펴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 공공·대학·전문도서관 총 3,719개관 가운데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15%인 80개관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19만여권, 국회도서관이 1만여권, 경주중앙도서관 등 9개의 공공도서관이 총 4천여권, 서울·지방 등 모두 59개의 대학도서관이 72만여권, 그밖에 전문도서관 10군데에서 15만여권 등 국내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총고서수는 1백만여권 정도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학도서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4곳이 전체 대학보유 고서

의 1/5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전적들은 목록을 통해 일반에 그 존재가 일목요연하게 알려진다. 현존하는 고서의 어느 정도가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실재하는 고서와 알려져 있는 고서의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소재가 알려져 있는 고서와 고서목록에 등재돼 있는 고서의 수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전적들을 목록화하려면 전적의 정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있거나 구석에서 쓸모 없다고 내팽개쳐져 있는 古書들도 적지 않고, 귀중본이 많더라도 예산이 없어 목록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규장각·장서각목록 최고로 꼽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고서들을 모으고, 숨어있던 전적들을 찾아내는 일을 학문의 본령으로 여길 만큼 전적발굴에 노력을 기울였던 1세대 국학연구자들 덕분에 書錄을 통해서만 알려졌던 주요고서들의 소재가 대부분 밝혀졌고, 요즘의 국학연구자들은 주요 전적들의 국역작업이나 첨단미디어에 담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로 연구작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1세대의 전적 발굴작업과 2세대의 활발한 국학연구 사이에 발굴된 전적들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담은 '목록화 작업'이 놓인다. 주요전적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빠진 것은 무엇인지, 그 대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지 등이 목록작업이 감당할 내용이다. 이같은 작업이 성실하게 진척되어야만 국학연구가 일시적인 학문적 유행

이 아니라 학문의 뿌리로서 계속 확산되고 깊어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

고서를 소장한 모든 곳이 다 목록을 만들고 있지 않지만 희귀본을 많이 가진 규모 큰 기관이나 도서관에서는 대부분이 목록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서 보유종수가 많고 귀중서 역시 많기로는 서울대 규장각과 정신문화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이 꼽힌다. 목록의 중요도는 좋은 장서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서 발간된 고서목록들이 국학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그 자체로 국보급인 전적들이 상당수인 서울대 규장각은 장서수도 35만여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古書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81년 5월 고서정리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같은해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을 上·下권으로 펴냈다. 이 종합목록에는 규장각 자체도서(한국본도서 24,793, 중국본도서 중 한국본 844종)를 비롯해 서울대중앙도서관에 있는 一蓑문고, 가람문고, 想白문고, 經濟문고 등 개인문고 그리고 자체수집본 등 모두 33,088종 113,820책을 담고 있다. 이전에 나왔던 「奎章閣韓國本總目錄」(13,380종, 40,399책)이 중국에서 간행된 한국본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보충했고, 활자본은 재감정하여 잘못 기재된 연대를 바로잡아 고서지정의 기준을 마련했다.

정신문화연구원은 지난 81년 장서각을 흡수하는 한편, 개원 이래 전국에 산재한 古書 古文書 탁본 등 한국학 연구에 필요한 고전자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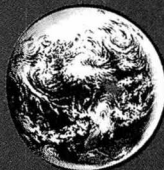
상당수 매입하여 주요전적이 많은 대표적인 곳에 꼽힌다. 특히 규장각과 쌍벽을 이루는 장서각에는 규장각도서관에는 없는 왕실관계자료, 政書類, 官案, 榜, 譜類, 한글소실류 등 국학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자료들이 다수 소장돼 있는데, 이를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附補遺篇, 고전적 83,537책, 고문서 5,184점, 기타자료 5,283점)에 수록하고 있다. 이밖에 정신문화연구원 자체가 78년 개원 이래 사들인 고전자료 가운데 89년까지 들어온 古書들만 따로 정리 지난해말 「藏書目錄」(고서편1, 총 9,704종, 24,590책)을 펴냈다.

고서보유수에 있어서는 정신문화연구원보다 더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80년 19만책에 달하던 고서들을 정리하여 5권짜리로 「古書目錄」을 마무리지었다. 1970년부터 고서목록 발간작업을 단계적으로 해와 1·2집에는 1945년 이전부터 있었던 古書들을, 3·4집에는 1946년 이후 수집본을 수록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목록은 여느 고서목록들이 經·史·子·集 4部類 체계를 따른 것과는 달리 한국집진분류표(KDC)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가운데 가장 많은 고서를 보유한 고려대중앙도서관은 일반 漢籍은 물론 晚松문고를 비롯해 石洲문고, 景和堂문고, 華山문고, 薪菴문고, 癡菴문고, 海史문고, 六堂문고 등 여러 篤志家들이 기증한 한적 등 모두 10만여책을 소장하고 있다. 고려대 편찬된 우리나라 最古의 사전 「용감수경」이 들어있는 「육당문고」 등 귀중한 한적이 다수 포함된 이들 문고들은 지난 73년부터 개별목록 작업에 들어가 현재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 1



## 지구대기행 <전6권>

### 46억 년 지구의 역사와 신비

46억 년 전의 지구 탄생에서부터 미래의 지구 모습까지, 광활한 우주에서 경이로운 땅 속 세계까지, 비밀에 감춰졌던 지구의 역사와 신비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구대기행」과 함께 그 신비를 풀어 나가세요!

• 기획 NHK/임종한 옮김/전6권/각권 값 3,000원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보는 과학 만화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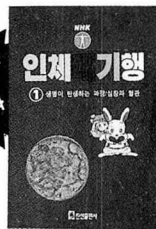
## 인체대기행 <전3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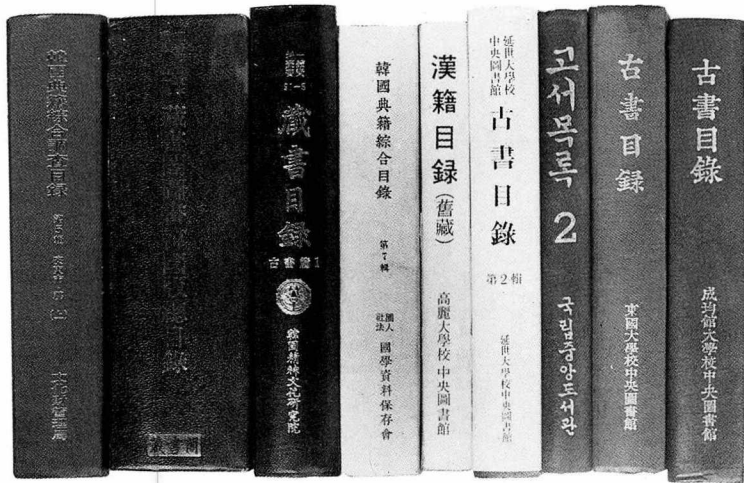
### 우리의 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복잡하고 신비롭기 짝이 없어 '소우주'라고까지 하는 우리의 몸, 인체, 이제 우리 몸 속의 구조와 신비를 만화로 차근차근 쉽게 설명한 「인체대기행」을 만나보세요. 재미있게 읽다보면 어느새 의학박사(?)가 됩니다.

• 기획 NHK/임종한 옮김/전3권/각권 값 3,000원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보는 과학 만화





주요 전적목록들.

모두 나와 있다. 이밖에도 일반고서들의 목록인 「漢籍目錄」(舊藏)에는 개인문고를 제외한 고려대가 소장중인 한적 5,873종 39,000여책이 수록돼 있다.

연세대중앙도서관도 약 10만책에 이르는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연세대 소장 고서에는 개개 학자들의文集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연세대의 목록정리방법은 동양서, 서양서, 新書, 古書의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목록기술표준(ISBD)을 따르고 있어, 고서목록 편찬의 현대화에 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대학도서관이 발간한 주요 한적 목록으로는 明倫전문학교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적을 포함 4,622종 38,693책의 고서를 수록한 성균관대의 「古書目錄」과 동국대, 영남대, 충남대, 계명대, 해군사관학교 등의 고서목

록들을 들 수 있다.

#### 고서목록은 국학의 기초, 지원 뒤따라야

장서수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이나 대학도서관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수장도서의 귀중도에 비춰보자면 그에 못지않는 개인문고들이 몇 있다. 고려대 「晚松문고목록」과 더불어 국내 유일의 古書박물관인 誠庵박물관에서 펴낸 「誠庵文庫典籍目錄」은 그 대표적이다. 지난 74년 11월 개관한 성암박물관은 실업가 조병순 씨가 환도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고서들의 수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광범위하게 모았던 수장품들로 문을 연 곳이다. 이 목록에는 국보 149호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卷6을 비롯 귀중한 일반사료와 서지자료 등 총 3,797종의 전적들이 수록돼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목록들이 소장처에서 발간된 것이라면 정부의 예산지원하에 국내외에서 그 실재가 확인된 한적들을 총망라했거나, 전국에 산재한 고서들을 지역별로 발굴해 묶은 두권의 목록은 또다른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먼저 지난 68년 국회도서관에서 펴낸 「韓國古書綜合目錄」은 국내 고서목록과 외국에서 발간된 한적목록 등에서 실재가 알려진 전적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까지 실재가 알려진 고서란 고서는 모두 수록돼 있는 셈인데, 어느 책이 어디에 소장돼 있는지 그 소재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은 문화재관리국이 지난 84년부터 각 지역 서지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계속 발간해 오고 있는 지역별 고서목록이다. 각 시·도별로 개인 서원 사찰 향교 도서관 박물관 등에 소장된 전적이나 고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해당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서를 목록에 등재시켰는데 지역별로 고서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대구·경북편」(1권, 84년) 「충청남북도편」(2권, 88년) 「강원도편」(3권, 89년) 「전라북도편」(4권, 90년) 「안동편」(5·6권, 91년) 까지 나와있다.

이밖에도 「한국전적종합목록시리즈」(국학자료보존회, 1~8집) 「古書目錄」(국사편찬위원회) 「濶松文庫漢籍目錄」(한국민족미술연구회) 등 해방후 간행된 고서목록들은 수십종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출간돼 있는 고서목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소장처별이나 지역별, 전체적인 총

목록이나, 부분적인 개인문고 목록에 이르기까지 필요하다 싶은 것은 구색에 맞춰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재가 확인된 드러난 고서의 대략적인 총수에 비해 목록작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비율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숫자보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목록이라도 내용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데 서지학자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모아진다. 가령 규장각의 종합목록이 우수하기는 한데, 목록내용이 너무 간단하다든가, 대부분의 고서목록들이 저자나 간행년대 등의 판식이 안박혀져 있거나 판본구명이 안돼 있는 등 오류가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이런 상태로는 고서정보의 획기적인 교류를 위해 컴퓨터에 입력시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더라도 쓸모없는 전산화에 불과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 나와있는 목록들의 보완작업이 절실한데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이 턱부족인 실정. 「한국고서종합목록」(국회도서관)을 편찬했던 윤병태(충남대 문헌정보학과)교수는 “이 목록집을 발간한 지가 20여년도 더 전인데, 아직까지 개정작업 못하고 있다. 그동안에 발굴된 고서만도 상당수인데, 이것이 제때 보완되지 않을 때 목록은 사용가치를 잃는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좋은 서지정보가 학문의 든든한 기초가 됨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데, 선대의 귀중한 전적문화 유산이 제대로 정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는 고서목록 작업의 현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듯하다.

— 정혜옥 기자

천운스님 隨想錄

## 끝없는 行願

### 나와 함께 사는 아이들

나는 16세에 불가에 귀의하여 나름대로 수행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나에게 수행에만 전념할 수 없게 만드니 정녕 세상은 고통의 바다인가 보다.

내가 어린아이들을 키운다는 소문을 듣고, 일년에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맡겨지니 나는 수행승이란 이름위에 고아들의 대부라는 이름 하나를 더 얻게 되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 거절도 해보지만 나는 천성이 모질지 못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한다. (中略)

20여 년간을 육영사업에 헌신하시면서 틈틈히 지어 모은 스님의 수상록.

천운스님 지음 / 5,000원



### 여래

· 전국 유명서점에서 만나십시오.

### 도서출판 여래

전화 / 739-2180 · 730-8976 팩스 739-2180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가 대형 B/D 201호

— 다양한 인도 세계 —

## 카스트의 세계

### 나는 왜 인도에 왔는가?

지난 60년대부터 느슨한 면바지, 카메라와 지도와 수첩만을 들고 인도 전역을 때로는 인도인들에게 토마토즙 세례를 받아가면서까지 몸으로 누빈 인도사학자 고니쉬 마사토시 교수의 저서.

인도아 대륙 전역을 다루고 있는 본서는 인도의 역사, 사회, 문화에 관한 지식을 요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

고니쉬 마사토시 저 / 인도사회연구회 편역 / 6,000원